

“광양5일시장, 먹고 마시며 재미 넘치는 곳으로”

명품시장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상설 시장화·먹거리 육성 등 제안 내년 9억원 투입 시설 개선...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디지털 시장 추진

개설 60주년을 앞둔 광양의 대표 전통시장 '광양 5일시장'을 상설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회는 이날 정인화 시장이 주재하고 관계 부서장, 광양5일시장 상인회,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난 1964년 개설한 광양5일시장(1일·6일)은 1만2704㎡ 터에 91개의 점포와 줄지는 상점 148곳이 장사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5일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조성 계획은 내년 초 마무리한다.

용역을 맡은 ㈜지창창의센터는 5일 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등 연계 발전과 유희공간 활용, 상인 자

생력 강화 방안, 주차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서 시장 여건 분석과 이용객 의견 조사,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 분석 등을 펼쳤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오일장 상설화와 대표 먹거리 육성, 주차장 확장 등이 제안됐다.

시장을 '매일시장'이나 '주민생활복지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연구용역 업체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한 달 열흘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농산물인 매실을 활용한 매실(편) 비빔밥과 매실 국수, 매실 닭구이 등을 상품화해 대표 먹거리로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에서 먹고 마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양조장(브루어리)과 주말 시장 등을 운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유계장옥(줄지는 상점) 내 유희공간 재정비 ▲가격경쟁력 강화 ▲닭구이 파티존 운영 ▲양조장 연계 음식 개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 9억원을 들여 광양5일시장의 지붕을 개량해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옥광양5일시장 상인회장은 "광양5일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이 자생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상인들이 의지를 다지고 노력할 테니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유계장옥 재정비, 구분점포 통합 운영, 집객력 있는 대표 음식 개발, 상설 시장화가 시급해 보인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양5일시장의 문제점과 단계별 해결 방안, 핵심 사업을 요약해 최종 용역 결과물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시장 정인화·가운데)가 21일 '광양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장 상설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순천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다음달 개원

조례동 미즈여성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 20일부터 진료 시작



오는 12월20일부터 일 년 365일 어린이·청소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순천에서 운영된다.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순천시 조례동 미즈여성아동병원(왼쪽)과 현대여성아동병원 진경.

순천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내년 본 예산을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병원 인력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1호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순천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지역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조례동 미즈여성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이 오는 12월20일 진료 시작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린이·청소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 년 365일 진료를 펼친다.

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

한다. 미즈여성아동병원이 월요일, 현대여성아동병원이 화·금요일 밤 11시까지 진료하는 연방 운영 방식이다. 주말의 경우 현대병원이 토요일 오후 7시까지, 미즈병원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은 9명, 미즈여성아동병원은 6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갖추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시기에는 각 병원에서 1명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교대 근무를 할 예정이다.

현대병원에서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직원 1명, 의료 기사 2명 등 6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미즈병원의 경우 의사 1명, 간호사 3명, 행정직원 1명 등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달빛어린이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 비용보다 부담이 적은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순천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내년 본 예산을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병원 인력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미즈여성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협약을 맺고 병원 운영을 준비해왔다.

올해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달빛병원 운영 희망기관 모집 공고를 낸 뒤 지난 10월 두 병원이 순천시에 달빛병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도는 이들 병원을 달빛병원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과 오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동부권 의료체계의 중심에 있는 순천시는 미즈여성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과 수시차량 협의를 거쳐 365일 야간 진료를 위한 협업 체계를 추진해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만화가 허영만,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여수 홍보대사...내일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토크콘서트'

여수 홍보대사인 만화가 허영만(사진) 작가가 오는 24일 연단에 나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보고고 섬 관련 문제 풀이 등도 진행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는 이날 오후 3시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허영만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준비위는 여수 섬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부터 여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만 작가가 연단에 선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허 작가와 섬 전문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행사장에서 섬박람회를 흥

래비전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이 반영코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역량을 모으고 국내외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공공 주차장 50곳 전기차 충전 가능

주요 관광지 등 99기 설치...민자유치로 예산 절감



고흥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공공시설 주차장 50곳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99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설치된 충전기는 급속 48기, 완속 51기다. 주요 관광지 등 99기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설치된 충전기는 급속 48기, 완속 51기다. 주요 관광지 등 99기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2월10일 현대엔지니어링(주)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10~20년간 유상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운영 전문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주)은 21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충전기 설치 터를 10~20년간 유상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21억원을 들여 충전기를 설치해 관리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수요 증가 대비 충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에 전입신고 하면 30만원 지원금

'고흥에 주소 갖기 운동'...5인 이상 전입 유공 장려금 최고 300만원

고흥군이 '10만 인구 달성'을 위해 최고 300만원의 장려금을 내걸고 '고흥에(愛)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흥에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10년 뒤 고령 인구 10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운동을 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고흥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아 운동을 펼친다.

고흥군은 지역으로 오는 전입 세대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자동차세 10만원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

5인 이상 전입하는 데 보탬을 준 기관·기업에는

전입 유공 장려금을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준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 다세대 주거 안정 지원사업' 조건을 기존 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고흥군은 기관·기업을 찾아 이 같은 인구 정책을 설명하고, 청년 직원들에게는 출산·양육·주거 등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운영하며 바쁜 전입자들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을 대신 해주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도로명 표기 우편함 설치



구례군이 14개 마을 217세대에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는 우편함(사진)을 새롭게 설치했다.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우편함에는 도로명 주소와 가구주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구례군은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편함 설치를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편함 교체에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대상 마을을 추가 선정해 세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우편함은 오래된 경관을 개선하고 우편·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도로명 주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정착 단계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92건 선정

보성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92건을 선정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내역과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정책의 내용과 관련자의 실명 등이 누리집에 연중 공개된다.

보성군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심

의를 거쳐 추진 상황과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